

안경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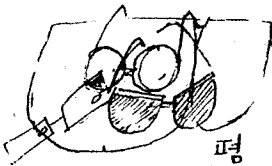
안경과 미용 ■ 李 相 旭

미의 기준은 시대와 더불어 변화하여도 아름답게 보일려는 노력은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다. 따라서 안경을 써서 아름다움을 보다 낮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안경을 비단찰만 보이기 위해 쓰는것만이 아니고 남에게 잘 보이도록 형이 맞는 안경을 써야 된다. 사람의 얼굴모양은 크게 나누어 5종류가 된다.

둥근 얼굴, 계란형(타원형) 얼굴, 네모진 얼굴, 마름모꼴 얼굴 그리고 삼각형 얼굴이다. 더우기 얼굴에 사용하는 안경은 눈이나 눈섭과 밀접히 붙어서 그 결점을 가려주며 그 사람이 지닌 개성(個性)을 살리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악세사리가 되고있다.

얼굴모양외에 고려되어야 할것은 감각적인 문제이다. 스포티한 감을 주는 사람, 드라마틱한 사람, 슈니어 같은 앳된 감을 주는 사람이 있다. 따라서 안경의 선택에는 얼굴모양과 감각적인 인상을 가미해서 고려해야 된다. 이러한 감각적인 문제는 느끼는 사람편에서 보는 방법에 따라 큰 차이가 생기는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안경테의 색채에도 자색(紫色)



평

시력을 조절하기 위해 쓰던 안경이 이제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쓰게 되었다. 그러나 잘못 쓰면 오히려...

의 드라마틱한 감이나, 검은 각형(角型)모양의 스포티한 것, 점교보석이나 모양이 특수한 드라마틱과 스포티의 혼합형등을 고려한다. 이렇게 볼때 근자에 안경을 고를때 광학적(光學的)인 면을 경시하고 미용위주의 사치성안경으로 흐르는 경향이 많다.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이 안경본래의 목적은 시력의 교정이며, 다음에 눈을 보호하고 피로하지 않고 눈의 기능을 돕고 발전시키는데 있다.

다시말해서 완전한 안경의 조건은 광학십미학(光學十美學)이 될 것이고 광학적으로 정확하고 개성에 맞는것이라야 된다.

실제로 눈이나 얼굴모양에 따른 안경테의 선택을 적어보기로한다. 눈꼬리가 올라간 사람은 안경테의 장식이 평범한것이 좋고 반대로 내려간 사람은 장식이 위로된것이 맞는다.

코가 짧은 사람은 흰것은 투명하거나 금속의 부릿지가 맞고, 코가 긴경우는 테의 위외색이 강한것이 좋다.

계란형 얼굴에는 테가 굵은것을 쓰고, 둥근 얼굴에는 다소 각이진형이나 두터운 테가 맞는다. 네모진형에는 아래가 둥근것이나 색이

진한것이 좋고 장방형은 얼굴의 제일 넓은 부분과 폭이 같은 테를 골라야한다.

세모꼴얼굴에는 바깥쪽에 다소 장식이 있는 테가 맞고, 거꾸로 세모꼴형은 비교적 후려 든것이나 윗쪽에 장식이 있는것이 개성을 살린다. 마름모꼴은 아래쪽이 금속으로되고 상부는 진한 색채가 있는것이 좋다.

안경테의 재료로 보면 투명한것은 근대적인 젊음을 나타내고, 테가 없는 것은 보수적인 감을 준다.

크기는 다소 큰것이 비교적 사치스럽고 젊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주의할점은 위에 말한것은 어디까지나 일반론에 지나지 않아서 참고로만 해야된다. 사람의 얼굴이란 마음이나 교양에 따라 분위기가 얼마든지 바뀌진다.

또한 심리적인 내용이 큰 영향을 함으로 이리이러한 얼굴에는 이것이 좋다고 단정지우는것은 적당한 것이 못된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얼굴모양에 따른 안경테의 선택에는 너무 일정한 법칙에 얽매이는 일이 없이 자기 개성을 충분히 살려서 선택해야한다는것도 매우 중요하다.